

200자 안내

징깡맨이

하근찬 지음

1957년 「수난2대」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온 이래 과작이지만 꾸준한 작품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중견작가의 신작장편으로 원제는 '쇠붙이 속의 魂'. 대학교수 현중하를 주인공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며 겪게 되는 후천적 비극과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짙어진 胎生의 비극을 대비시키고 있다.

예지각 / A5신 / 272면 / 3500원

自由人

李丙昊 지음

아시아태평양양변호사회 창설자이자 현재 그 회장직을 맡고 있는 원로법조인의 자서전. "신성한 법정이 시위장으로 타락한" 오늘의 현실이 안타까워 "낯은 메모랜덤 속에 잠자던 어제의 기억을 되살려 반성의 거울로 삼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백양출판사 / A5신 / 428면 / 6000원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

조병화 지음

처녀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에서 제10시집 「낮은 목소리로」까지 10권의 시집을 내기까지의 시와 인생의 편력을 시인 스스로 솔직한 에세이집. 각 장의 첫머리에 당해시집에 얽힌 에피소드를 소개한 다음, 그 시집에 수록된 대표작들에 대한 해설을 실어 일종의 自作詩해설집의 성격을 드러낸다.

중앙출판공사 / A5신 / 250면 / 3000원

만화채근담

진동일 엮음

명의 학자 洪自誠이 지은 「菜根譚」을 만화로 꾸며 쉽고 재미있게 읽고 배울 수 있도록 엮은 책. 讀音과 함께 원문을 제시한 다음 번역문을 실고 그 아래에 어의와 어울리는 만화를 그려넣는 식으로 구성돼 있어, '노인의 철학'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채근담의 심원한 사상을 부담없이 접할 수 있다.

예문당 / A5신 / 248면 / 3000원

강대국의 쇠퇴

제임스 렉서 지음 / 이왕재 외 옮김

미국·영국·일본·서독·프랑스·이태리·스웨덴·캐나다·소련 등 9개국의 경제체제를 사기업경제체제, 명령경제체제, 사기업의 국가개입경제체제로 삼분, 그 장점과 취약점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경제대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책. 부제는 '현대 국제경제에서의 승자와 패자'.

인간사랑 / A5신 / 232면 / 4000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손동연 엮음

기도를 주제로 한 한국현대시 앤솔로지. "가을에는 / 기도하게 하소서 /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라는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를 비롯, 김남조·김승희·도종환·박남철·박정만·신달자·유안진·이성복·이해인·전봉건·정호승·홍윤숙·황금찬 등의 작품 100여편을 한데 묶었다.

타임기획 / A5신 / 182면 / 2800원

웅비의 사고로 최고의 인생을

슈왈츠 지음 / 박달규 편역

자기혁신의 신사고로 최고지향의 인생을 사는 구체적·실천적 방법들을 다각도로 제시한 책. 모두 11장으로 나누어 처세와 성공의 요령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성취시키는 유일한 방도는 사물을 크게 보고 크게 사고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

한국산업훈련연구소 / A5신 / 300면 / 5300원

당신에게도 유령은 나타난다

편집부 엮음

옛날이야기나 전설 등에 나타나는 각국의 괴기설화, 혹은 문학작품 속에 출현하는 유령 이야기를 정신의학적으로 분석, 그 실체를 밝힌 책. 괴기담과 유령의 논리를 인류의 근원적인 공포체험이라는 심층심리에 투사시켜 그 메카니즘을 해부함으로써, 유령이야기의 '과학적 진실'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성과학 / A5신 / 254면 / 3500원

세계사

한국사목연구소 엮음

현행 중고등학교 교재들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가톨릭적 시각에서 비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톨릭교과교육자료집'의 '세계사편'. 김성태(서울가톨릭대), 이민호(서울대), 조정래(상명여대) 교수 등이 공동집필했는데, 로마제국의 교회사에서 라테라노조약까지를 다루었다.

한국사목연구소 / A5신 / 112면 / 2500원

코미짜르

바실리 그로스만 지음 / 한명준 옮김

1920년대 초기의 붉은 군대와 백러시아군과의 혁명전을 배경으로 한 여성인민위원의 고통과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1988년 베를린영화제 4개부문을 석권했던 영화소설. 처음 발표당시 시오니즘과 제국주의자적인 맹목적 애국심을 조장한다고 하여 탄압받다가 최근에야 겨우 빛을 본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모아 / A5신 / 302면 / 3500원

소설 歷史人物列傳

李炳注·李文求 지음

우리역사상 지울 수 없는 큰 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쓴 책. 쓰러져 가는 고려의 명운을 살리려다 산화한 정몽주의 삶을 그린 이병주의 「포은 정몽주」, 토정비결 뒤에 숨은 이지함의 牧民官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되살린 이문구의 「토정 이지함」 두 중편을 같이 묶었다.

스포츠서울 / A5신 / 254면 / 3500원

일꾼시사교육

일꾼노동문제자료연구실 엮음

현장노동자들이 쉽게 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씌어진 시사문제 해설서. 1987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앙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의 꿈은 과연 희망인가 절망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토지공개념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최근의 분단현실과 통일의 절박성이 갖는 문제점들을 논한 글들을 엮었다.

한울 / A5신 / 102면 / 1300원

터지는 데 5분, 버티는 데 5분

대학신문기자연합회 만화분과 엮음

1980년대의 10년간 서울지역 대학신문에 게재됐던 시사만평을 관련자료와 함께 엮은 카툰집. '배후세력' '꼭둑각시놀이' '80년대의 변화와 전망' 등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는데, 서툰지만 참신한 시각의 대학생만평을 통해 우리 당대를 보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미래문학사 / A5신 / 190면 / 2900원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김길상 엮음

1969년 여러 큰스님들의 법어와 행장을 모아 간행됐던 「고승법어집」의 20년만의 개정증보판. 한국불교사의 우뚝 선 산맥들인 경허·용성·만공·만암·한암·혜암·효봉·운봉·동산·고봉·춘성·경봉·인곡·금오·동헌·전강·고암·대은·청담·상월·향곡·탄허대종사의 행장과 법어를 모았다.

홍법원 / A5신 / 516면 / 5500원

兒童養育

유안진 지음

교육학 및 심리학적 시각 아래 씌어진 육아법연구서로 종래의 이 방면 책들이 의학적 접근법을 보이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특히, 비교육아론적 관점에서 소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육아방식 및 다른나라의 육아법 등이 흥미를 끌며, 육아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가족사적 배경요인들도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문음사 / A5신 / 336면 / 6500원

우리가 진실로 가르치고 배우야 할 것은

신현대 지음

현직교사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평소 겪고 느꼈던 일, 혹은 바라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글들을 한데 묶었다. 사랑을 가르치는 이상적인 교사상을 비롯해 교과서의 위력에 대한 비판,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학부모의 교육열, 외국어학습의 어려움 등 누구나 한번 씩 부딪뜨리게 되는 문제들을 모두 50여편의 글에 담아 정리했다.

이문출판사 / A5신 / 236면 / 2500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책 속에 있었다

폴 임 엮음

선봉기는 주위를 서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몸의 습기를 증발시킨다는 사실을 비롯, 생활주변의 사소한 이야기나 역사의 시시콜콜한 구석들, 혹은 유명인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 등을 모두 1,013항목에 걸쳐 정리한 책. 우리에게 드문 트리비아리즘적인 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뉴라이프스타일 / A5신 / 348면 / 4200원

날씬한 책

이청준 외 지음

청소년독자를 위한 '젊은소설모음'의 제1권. 표제와 겹맞는 가로 5cm, 세로 23cm의 '날씬한' 판형이 독특한데, 이청준의 「조만득씨」를 비롯하여 현길언의 「작은 악마」, 송영의 「친구」, 박완서의 「연인들」, 최일남의 「흐르는 북」, 양귀자의 「원미동시인」, 서영은의 「노란 반달문」, 조정래의 「장남 외출타기」, 황순원의 「별」 등이 수록돼 있다.

명진 / 규위 / 260면 / 2800원

한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첫걸음

강홍주 지음

러시아어를 배우고자 하는 초보자들을 위해 러시아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형태론 중심으로 압축풀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집된 학습서. 특히, 각 장마다 러시아의 언어관습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예문과 연습문제를 실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본문의 내용을 직접 듣고 반복연습할 수 있는 학습테이프도 함께 나와 있다.

슬라브 연구사 / A5신 / 234면 / 5000원

오늘의 명상

백준기 · 유영일 엮음

동서고금을 통하여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시인, 예술가들의名言을 선별하여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젊은이들에게 성현들의 생활철학을 음미케 함으로써,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권말에 「인명별 명언집」, 「인명록」을 수록하고 있다.

大榮文化社 / A5신 / 240면 / 4000원

월채어에 사랑을 싣고

高明昇 지음

육사 15기로 임관, '89년 육군대장 예편이라는 화려한 군경력을 가진 저자의 인생역정기. '경치추 지주막하 수종염'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월채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이 책은 3, 4, 5공화국의 격변기를 거친 4성장군으로서의 군대체험 속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고민과 극복과정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다.

고려원 / A5신 / 222면 / 3500원

계간지

외국문학(90년 봄호)

[특집] 소설이론의 쟁점 ▲역사소설의 한 가능성(이상옥) ▲루카치와 바흐첸 소설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반성완) ▲독자중심비평과 피화자(이봉지) ▲소설문체의 다상성과 이야기구조의 다원논리(이상신) ▲스탈린문화와 소련(최선)

[논문] ▲문학텍스트 이해방법론의 새로운 방향과 전망(고위공) ▲본성과창조(구모룡) ▲여성성의 탐구와 그 소설화(김경수) ▲베트남 민족해방 투쟁의 안과 밖(정호용) ▲「아담의 후예」에 나타난 '젠더 공간'의 양상(강금숙) ▲'풀어져 있음'으로서의 '있음'(이정호)

[시] 천상병 / 오세영 / 마중하 / 옥타비오빠스
[소설] 최수철 / 노사 / 왕몽
열음사 / A5신 / 324면 / 4500원

사상(90년 봄호)

[특집] 전쟁과 혁명, 6·25와 4·19 ▲1950년대를 보는 하나의 시각(유영익) ▲미국은 왜 한국에서 극우세력을 지지했는가(제임스 메트레이)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연구현

황(김철범) ▲한국전쟁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중·소동맹(조너선 폴락) ▲한국전쟁과 북한정치(고병철) ▲한국전쟁의 숨은 뜻(이재진) ▲4·19민주혁명과 이의 계승(박현채) ▲4·19혁명의 사회학적 분석(한상진) ▲문학 속에 굴절된 전쟁경험(유종호) ▲기만된 평화, 거북한 승리(최정호)

사회과학원 / A5신 / 332면 / 3000원

무크

한겨레평론(제2호)

[특별좌담] 정계개편과 정국전망(장울병 · 김정길 · 김희택 · 이해찬)

[특집 / 사회주의권 대변력, 그 동향과 전망] ▲동구 사회주의 제국의 개혁과 사회주의 이념의 회복(김호균 · 윤형식 · 한승완) ▲새로운 사회주의사상과 소련의 정치체제개혁(김원재) 외.

[정치] ▲통일선선론의 쟁점과 80년대 통일선운동의 흐름(양재원) ▲1989년 통일운동, 그 성과와 한계(홍진표)

[경제] ▲한국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박세길) ▲현시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일 제언(곽세현) 외.

[국제관계] ▲비동맹운동의 일반적 고찰과 제9차 비동맹수뇌회의의 평가(김영환) 외.

[한겨레논단] ▲화이트칼라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이영희) 외.

이론과 실천 / A5신 / 378면 / 4000원

학술지

민족문화(제12집)

[논문] ▲고려초기 郡縣의 主屬관계형성과 지방통치(김일우) ▲狂眞子 洪裕孫의 신분적 속박과 도가적 생애(손찬식) ▲梅月堂詩에 나타난 濟世安民사상(최석기) ▲秋江 南孝溫의 교유와 시적 변용(이창경) ▲吳知詠「東學史」의 내용검토(이이화)

[강연초] ▲金正喜의 학문(임창순) ▲秋史 김정희선생의 생애와 예술(최완수)
민족문화추진회 / A5신 / 296면 / 비매품



자료집

한국출판문화 산업단지자료집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추진위원회 엮음



지난해 6월에 처음 공식발의된 이래 '한국출판의 메카'를 조성하겠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

학제의 책

朝鮮의風水

村山智順 지음 / 崔吉城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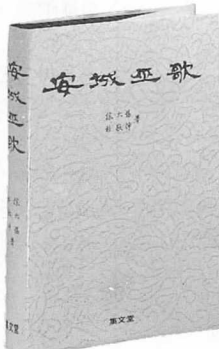


1931년 식민지정책 수행의 자료로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했던 「朝鮮의風水」가 60년만에 우리말로 번역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색출판

安城巫歌

徐大錫 · 朴敬伸 엮음



서울 · 전주와 더불어 방각본소설의 출판처로, 사당패의 본거지로, 그리고 농악의 발흥지로 잘 알려진 안성지역에 구비전승돼 오던 巫歌를 채록한 「安城巫歌」가 출간돼

지 건설추진의 경과를 일별할 수 있는 자료집이 최근 나왔다.

이 자료집은 애초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일산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그것과 연계하여 구상이 현실화되는 과정까지를 모두 담는 한편, 각종 심포지엄의 토론내용 및 매스컴에 보도된 관계기사, 출판인들의 결의문, 추진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자료 등도 폭넓게 수록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산신도시계획에 현재 출판문화산업단지가 중추적 기능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집은,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반성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 되는 동시에 장차 이와 유사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추진위원회 / A4 / 110면 / 비매품

'조선의 풍수' '묘지의 풍수' '주거풍수' 등 전 3부 15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우리나라 풍수사상의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불순한 동기'와는 별도로 학술적 가치가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 제3공화국시절 고속도로를 뚫을 때 청와대에서 가장 먼저 찾았던 책이라는 후일담이 전해질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쳐 왔다.

"총독부 책이라는 점에서 망설임도 있었지만 학술적 가치가 하도 커 더이상 버려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번역에 나섰다"는 역자에 따르면, 관찰자적 입장의 일체에 의해 '무섭도록 정확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책'이라고.

민음사 / A5신 / 704면 / 12000원

관심을 끌고 있다.

한개 군지역만의 무가를 집성했으면서도 충분한 볼륨의 책 한권으로 엮어냈다는 점에서 우선 주목을 끄는 이 책은 특히, 곳을 진행하는 샤먼 자신이 거거리와 무속의 해설을 겸하고 있어 종래의 무가집과는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해설편과 자료편의 두 부분으로 나눈 가운데 먼저 해설편에는 조사경위와 체보자(구술자)의 인적 사항, 자료정리의 원칙 등을 밝혔다. 자료편에는 부정굿, 조왕굿, 산신굿, 제석굿, 별상굿, 성주굿, 대감굿, 선황거리, 창부거리, 걸립굿, 뒷풀이, 망자굿, 치병굿 등의 무가를 상세한 각주와 함께 구술 그대로 정리해 실었다.

집문당 / A5신 / 494면 / 12000원